

##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다. 그는 역사의 본질을 투쟁으로 보았다. 아난게 아니라 유사 이래 5백 내지 1천명

# 걸프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건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규모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명의 발전과 정비례하고 있다. 물론 인구팽창과 있던 무기개발 탓이겠지만 세계 1·2차대전을 비롯한 거대 규모의 전쟁이 대부분 20세기에 발발했다. 두 대전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란·이라크전쟁에서만 6천5백여만명이 사망하고 1억이 넘는 사람이 부상했다.

「전쟁은 난폭한 스승이다」 희랍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말이다. 전쟁은 인간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허영과 안락을 일순간에 잊고 생존의 본능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삶의 진실한 조건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장 난폭하고 처참한 전쟁은 그만큼 더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러나 인류역사에 스승은 많았지만 인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국가생활을 시작할 이래 그것이 도시국가이든 군주국가이든 아니면 민족국가이든, 국가들 사이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왔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국가들은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파괴적 폭력수단을 조직, 강화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류역사란 전쟁과 전쟁준비의 과정, 바꾸어 말하면 평화구축 노력의 실패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걸프만이 전화에 휩싸이고 있다. 천일야화의 배경, 사라센문명의 모든 성취의 결정인 티그리스강변의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도시 바그다드가 연일 다국적군의 폭탄세례를 받고 있다. 바그다드가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칸에 의해 초토화된 것은

1258년 2월 10일의 일이다. 바그다드는 그후 찬란했던 그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 엘러 테러의 잿더미에서 바그다드를 일으킨 것은 20세기 후반의 오일문명이었다. 1991년 1월 17일, 드디어 걸프전쟁이 시작되었다. 사담 후세인이 누구길래, 그의 야욕이 과연 얼마나 엄청난 것이길래 전쟁의 참화를 자초하는가. 걸프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행방을 조명해 본다.

## 2. 걸프전쟁의 역사적 배경

이탈리아의 역사가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참된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슬회하였다. 이것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간의 대화다. 그러나 죽은 과거(*dead past*)와 산 현재(*Living present*)간의 대화가 아니라 산 현재와 그리고 사가에 의하여 재생되어 현재에 계속되는 과거와의 대화」라는 카이의 말과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의 해석이나 미래의 전망도 주어진 현재적 상황의 충실한 인식에 비례하여 보다 명백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걸프전쟁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美國 등 다국적군이 약소국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은 실타레처럼 엷혀 있다. 이번 전쟁은 「땅」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밑바닥엔 수천년에 걸친 전쟁의 역사, 원한의 역사, 종교적 역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 (1) 갈등의 뿌리

이스라엘은 영국 등 서구열강의 보호아래 1948년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 팔레스타인에 건국된 유대인의 나라이다. 그때부터 아랍과의 사이가 나빠져 4차례에 걸쳐 中東전쟁이 일어났고 아랍은 전쟁때마다 굴욕과 좌절을 맛보며 오늘에 이른다.

유대인과 아랍인은 다같이 공동의 조상으로 구약성경과 코란에 동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는 셈제인종이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의 자손이 후세의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랍인이라고 한다. 같은 조상을 가지면서도 아랍인과 유대인은 이슬람 발생때부터 충돌한다. 이슬람은 예언자 마호메트에 계시된 이슬람 성전 코란이 유대교나 기독교에 주어진 구약이나 신약성경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다른 것은 코란이 유대말이 아닌 아랍어로 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7세기초 마호메트가 당시 다신교가 판치고 있던 메카에서 압박을 받고 메디나로 이주할때 메디나에는 유대 부족이 아랍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인지 또는 사도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인정하지 않았다.

마호메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이며 예언자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에 대한 우호정책을 이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최초의 나타남이 이슬람의 예배방향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메카쪽으로 바꾼 것이다. 예배방향은 이슬람의 신앙상징이다. 메카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이맘(예배집전자)으로 임명되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건립하여 하나님에게 바친 카바신전이 있다. 이는 이슬람을 유대인이 아닌 아랍중심의 종교로 한 것을 의미한다.

아랍은 그로부터 1천3백년후인 20세기에 들어와 역사적으로 두번째로 유대인과 대립한다. 아랍의 땅 팔레스타인에 유대국가 이스라엘이 건립된 것이다. 전세계의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케하는 계기를 만든 시오니즘의 한 창시자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슬람의 아랍에 대해 유럽을 보호하는 방패로 야만에 대항하는 문명의 전초기지로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의 거주민은 아랍인이고 그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다. 같은 셈계 일신교를 신봉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믿는 신은 유대민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랍이 믿는 신은 유일신 알라이다. 이스라엘은 특수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민족만의 국가이다. 아랍은 제1차 세계대전후 英佛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할된다.

西아시아 즉 동부아랍권에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와 아라비아반도의 여러 나라가 생겼다. 이들 아랍국가들은 정치적 구조의 차이나 국가적 이익에 따라 서로 다투거나 충돌하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문제만큼은 전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팔레스타인에게 시온주의자 유대인을 축출함으로써 아랍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문제의 핵심은 아랍과 유대 두 민족이 하나의 지역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대인이 정착한 시온동산의 땅 팔레스타인은 AD70년 로마제국에 의해 유대조상들이 쫓겨 나왔던 땅이다. 유대인이 유랑의 한을 씻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아랍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증오하고 있다. 일부 호전적인 아랍국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무력 이외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라크인 것이다. 강경과 아랍국들은 또한 美國등 서구제국주의 열강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석유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이슬람통치정신에 위배되는 일부 아랍보수 왕정국들의 지배층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中東 분쟁의 역사

이라크가 위치한 메소포타미아지역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생달지역으로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다. 이 지역이 최초로 통일된 것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왕국을 건설한 하무라비왕에 의해서이다.

그후 변방 유목민의 침입을 받아 이 지역이 분열되자 기원전 7세기 느부갓네살왕은 이 지역을 다시 통일, 新바빌로니아왕국을 세웠다. 그는 이민족 유대인의 나라 유다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주민을 바빌론에 유폐시킨 「바빌론의 幽囚」를 남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지만 아랍민족에게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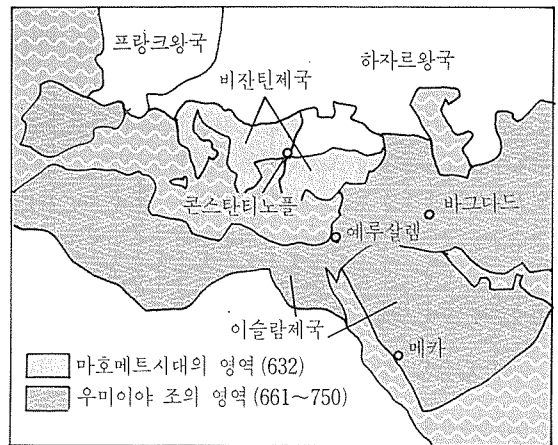
그러나 이 지역은 풍부한 산물과 화려한 문화를 탐내는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 페르시아제국에 정복당하고 기원전 2세기에는 알렉산더대왕에게 정복당했다.

피지배와 수탈로 이어진 아랍세계를 새로운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한것은 마호메트(570~632)의 등장이다. 그가 창시한 이슬람교는 그때까지 부족단위공동체로 흩어져 있던 아랍세계를 통일, 이슬람문화를 꽃피웠다. 이슬람교는 당시 東로마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아랍지역의 부족들을 통일, 움마(교도공동체)를 형성했다.

632년 마호메트의 사망후 시작된 칼리프(후계자)시대에는 수많은 부족들을 이슬람 권위 아래 묶어두고 코란의 지상과제인 聖戰(지하드)을 통한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 정복사업에 열중케 된다. 그러나 656년 3대 칼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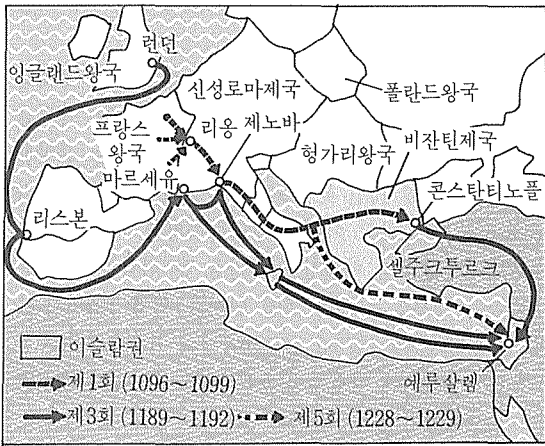
우스만이 사망하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져 알리를 추대하는 세력과 우마이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충돌했다. 우마이야의 승리로 끝난 이 대립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을 가져와 이라크·이라크 대립의 기원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마이야朝로 이어지는 전통 칼리프 권위를 인정하는 세력이 수니파(다수파)이고 알리추종 세력은 시아파라 부르게 되었다. 680년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살해되자 그 추종세력은 우마이야朝를 규탄하고 아랍지배층 정권에 반대하면서 이맘(메시아)을 믿는 자신들만의 교리를 갖게 되고 그후 1502년 이란의 사파비왕국의 국교로 공인돼 이슬람 2대 종파로 자리잡았다.

##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확대 (7C초 - 8C말)



그후 중앙아시아에 살던 터키계 부족이 방목을 위해 점차 서진하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그 세력에 흡수된뒤 992년에 카라한朝를 비롯, 977년 가즈만朝, 1038년에 셀주크朝를 건설했다. 그중 셀주크朝는 1071년 비잔틴군과의 전투에서 승리, 소아시아반도의 동부, 중앙부를 잠식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했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유럽제국은 1096년부터 1271년에 걸쳐 7차례의 십자군전쟁을 일으켰다. 170년간 계속된 십자군전쟁은 이슬람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때 예루살렘왕국을 멸망시킨 살라딘 칼리프는 그후 아랍인들이 추앙하는 성전의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십자군 원정로 (11C - 13C)



이같은 기독교세계의 이슬람권 침략은 양대 종교세력 간의 깊은 원한의 씨앗이 되었다. 아랍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프전쟁을 또다른 십자군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여기에 연유된다.

그후 13세기에 몽고족의 침입으로 쫓겨난 터키부족의 일파가 소아시아반도에 침입, 셀주크朝 말기 술탄으로부터 영지를 할양받았다. 이 터키계 무슬림의 지도자 오스만은 1288년 비잔틴제국의 영내로 침입하여 1299년 오스만터키제국을 건설했다. 그후 1326년 소아시아지역을 통일하고 마호메트2세(1451~1481)때 비잔틴제국을 멸망시켜(1453년) 유럽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오스만 터키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15C - 18C)



오스만군은 1516~17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지역을 차례로 정복하고 1516년 셀림1세는 칼리프 칭호를 이어받아 이슬람의 종주권을 장악, 술탄 칼리프제도를 확립했다. 그후 계속적인 정복사업으로 최전성기인 1683년에는 그 세력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 대제국을 이루었다.

오스만터키제국이 전성기를 누릴때 동쪽에 자리잡은 몽고세력은 서서히 쇠퇴하고 티무르朝가 발흥했다. 당시 티무르朝와 오스만朝 중간지역에서는 터키부족연합인 白羊朝와 黑羊朝가 공존했다. 흑양조는 시아파로 개종하고 1500년 백양조를 무찌르고 티무르朝를 잠식하면서 사파비朝(1502~1722)를 건설했다. 이란인(아리안족)을 중심으로 한 이 왕조는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제국을 건설했다는 목표아래 시아파를 국교로 정해 그들만의 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오스만터키의 전성기도 17세기를 고비로 쇠락해 1683년 제2차 빈 포위공격에 실패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오스트리아, 러시아등에 영토 일부를 빼앗기고, 1801년 나폴레옹의 이집트원정을 계기로 드세진 열강의 압력에 밀려 그리스 독립, 이집트 이탈,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英國의 아덴 점령등이 잇따랐다. 그후 러시아·터키전쟁(1877~1878)에 대패하여 유럽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1차대전을 거치면서 현재의 터키지역을 제외한 모든 점령지는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등의 통치지역으로 분할돼 각각 독립절차를 밟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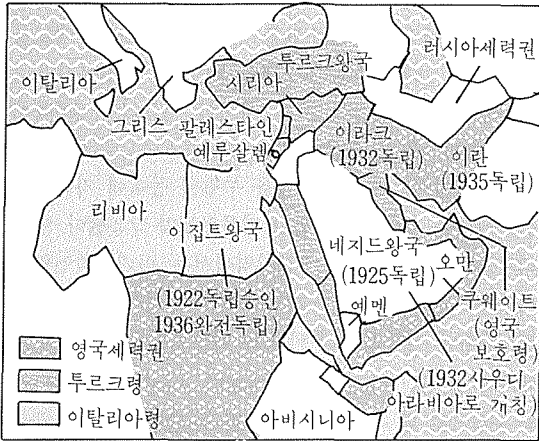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은 쿠웨이트였다. 오스만터키 치하에서 이라크와 함께 바스라州의 일부였던 쿠웨이트는 英國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1899년 英國 식민지로 합병되고 1907년에 英國 보호령이 되었다. 1차대전후 오스만제국이 사실상 붕괴되자 英國의 보호령을 거쳐 1961년 6월 독립을 선언했다.

이라크는 1차세계대전 당시 英國의 위임통치령이었다가 1932년 독립했다. 함께 오스만터키제국의 一였다가 다시 함께 英國의 지배를 받았으나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절차를 거쳐 독립했다.

이같은 英國 자의에 의한 이라크·쿠웨이트 분할은 결국 이라크의 쿠웨이트 영토권 주장을 야기시켰고 (1963년) 후세인의 이라크침공의 구실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아랍권에 불어닥친 민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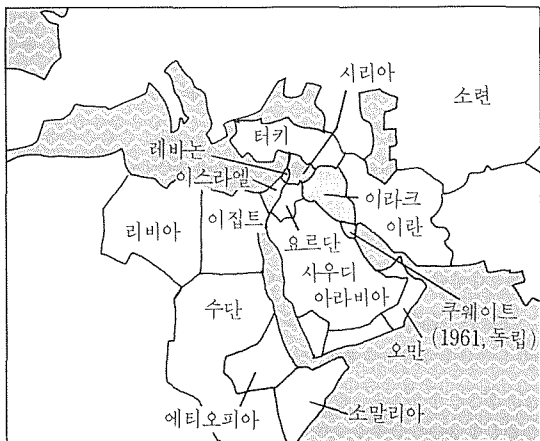
1차세계대전후 열강에 분할된 서남아시아



의는 1913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아랍회의에서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16년 5월 英佛의 상간의 사이코스-피코협정에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건설을 약속하고, 1920년 연합국 최고회의에서 아랍인 거주지역을 신탁통치령으로 결정한 사실은 아랍권이 민족주의 깃발 아래 정치적 독립과 反서구 투쟁에 나서게 되는 촉발제가 되었다. 특히 1922년 케말 파사가 이끈 터키공화국혁명에 고무된 아랍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후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6년 英佛협정, 1917년 英國의 발포어선언

2차세계대전후 중동판도



이후 유대인 이주가 시작되자 英國의 위임통치령이던 팔레스타인내에서는 反英·反유대인 투쟁이 격화되었다.

사태수습에 실패한 英國은 1947년 유엔으로 이 문제를 이관하고 美國은 對蘇전략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 2차례의 예비투표를 거쳐 팔레스타인을 분할했다. 1948년 5월 14일 英國軍의 철수완료와 함께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고 이는 아랍민족주의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옴마의 단일성에 바탕을 둔 아랍민족주의는 「아랍권 재통일」이라는 과업 달성을 위해 1949년, 1956년, 1967년 및 1973년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벌였으나 여전히 분쟁의 씨앗만 남긴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3) 아랍문화

걸프전쟁 발발로 온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中東은 세계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문명과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문명등 세계 4대문명중 2대문명이 발원한 인류문화의 시발점일뿐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이 근대에 와서는 분쟁과 석유문제등에 휘말리면서 그 문화적 의의는 잊혀져 왔으나 전쟁발발을 계기로 문화유적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中東문화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걸프 전쟁의 당사국인 이라크가 위치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압바스왕조의 수도와 바빌로니아의 유적, 수메르인의 고대도시 우르 및 앗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등이 번성했던 고대오리엔트문명의 보고다.

中東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문명은 기원전 3500~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설형문자의 발명 및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법전을 낳았다. 이 설형문자는 바빌로니아, 앗시리아에 계승되어 오리엔트제국전역에 퍼져 로마제국이 일어나기전까지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함무라비법전은 민법, 상법, 형법, 세법, 소송법, 노비법등으로 세분된 놀랄만큼 정비된 법전으로 당시 사회의 발전수준을 짐작하게 해준다.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는 천문학도 발전, 태음력도 발전

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문명은 발생지가 광활한 평원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왕궁등 주요유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폐쇄적인 지형 조건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던 이집트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후에 인도, 페르시아등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흡수하면서 발전해왔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앗시리아제국의 흥망과 페르시아제국, 알렉산더대왕의 정복등을 거쳐 이 지역에 오늘날의 「아랍문화」의 직접적 출발점이 형성된 것은 7세기경 아랍인들이 정착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랍문화의 원형이된 이슬람문화는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핵으로 발전한 하나의 독특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문화의 특징은 아랍인들이 아라비아에서 단순히 이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이래 이 지역을 지배해 온 수많은 민족의 문화와 주변국가들의 문화를 흡수 융해시킨 복합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슬람문화는 페르시아, 그리스 및 로마제국의 영역을 점유해 그 문화적 유산을 흡수함으로써 시대적으로는古今을 연결했으며, 인도와 中國의 문화까지 받아들임으로써 공간적으로는 동서를 연결한 문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슬람문화의 근본은 이슬람교에 있는 만큼 그리스철학을 빌려 이슬람교를 합리화·체계화시키려는 이슬람 철학이 발달했다. 특히 9세기경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 그리스 고전의 아랍어번역이 절정에 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븐 시나와 이븐 바투타등 유명한 이슬람철학자들이 등장, 10~11세기에 이슬람문화의 황금기가 전개됐다. 역사학도 발달해 중세 이슬람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이븐 할둔의 「세계사」와 이븐 바투타의 「견문기」등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저술로 꼽힌다.

이슬람문화의 또 하나의 지주가 아랍어였듯이 아랍인들은 시와 산문등도 발달시켰다. 이슬람의 시는 마치 웅변처럼 청중에 대한 호소력이 특징이다. 산문으로는 9세기부터 수세기에 걸쳐 집대성된 「아라비아나이트」가 아라비아인의 풍속과 생활감정을 표현한 대표적 작품이다.

아랍문화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것은 자연과학의 발달이다. 화학, 대수, 연금술등 과학용어 가운데 아라비아어에 어원을 둔 것이 많고 오늘날의 아라비아

숫자도 아라비아인들이 인도의 숫자를 개량하여 만든 것이다. 이슬람미술은 비잔틴미술과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등의 영향 위에 이슬람의 종교사상을 융합시켜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냈다. 이슬람미술은 이슬람교가 聖畵를 인정하지 않아 회화가 발달하지 못한 대신 회교 사원의 건축과 장식등이 번성했다. 건축에 있어서는 뾰족한 탑과 원개형지붕등이 특징이며 사원내부를 기하학적 무늬와 채색타일등으로 치장하는 아라베스크가 유명하다. 이밖에도 운이 나는 도자기와 양탄자등 공예 품도 발달했다.

이슬람의 이같은 독특한 문화는 게르만민족의 침입으로 유럽이 문화적 암흑기에 처해 있을 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슬람문화는 또 십자군 원정등을 통해 유럽에도 널리 퍼져 나갔다.

이처럼 아랍의 문화는 근현대에 와서 빛이 가려 있었지만 아랍민족의 독립과 아랍민족주의의 발전에 따라 아랍내부에서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19세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 아랍어의 전파와 근대문학 부흥등으로 나타났다. 20세기초에는 이라크등에서 대대적인 고대유적 발굴사업도 진행됐다. 바그다드 남쪽 85km지점에 위치한 바빌론유적 발굴로 신바빌로니아 전성기의 신전, 왕궁, 성벽등의 유구가 밝혀졌고 고대도시 우르의 유적도 발굴됐다.

그러나 석유와 패권을 둘러싼 잦은 전쟁으로 中東의 문화유산은 아직도 찬란했던 고대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 3. 걸프전쟁에 대한 시각

서방언론들이 「아랍의 히틀러」 「바그다드의 백경」이라고 매도한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아랍민중들에게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아랍세계의 상징」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서방 강대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행동하는 지도자」, 아랍민족주의를 되살려 단일아랍제국을 재건할 수 있는 「영웅」을 찾고 있던 아랍인들이 볼때 후세인은 분명히 「아랍의 大義」를 제시해주는 「알라신의 대리인」이다.

서방세계에는 위협하고 야만적인 독재자로 보이는

그가 참혹한 경제봉쇄속에서 5개월여를 거뜬히 버티고 마침내 28개국 다국적군과의 결정마당에 설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력은 「아랍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아랍인들의 자각과 美國, 유럽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에 바탕하고 있다. 아랍인들에게 후세인은 무엇보다 아랍인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되찾아주고 아랍이 단결하면 어떤 강대국과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을 불러 일으켜준 「아랍세계의 새지도자」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7~8세기 세계를 제패했던 아랍제국이 쇠망해진 뒤 오스만터키제국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간교한 지배에 시달려온 아랍권은 그동안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필요로 해왔다. 특히 「분할과 지배」라는 고전적 식민지 지배방식에 따라 사분오열된 아랍세계는 비록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한바탕에 묶어줄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기다려왔고 후세인은 여기에 때를 맞춰 등장한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후세인이 아랍인들의 「에스 콤플렉스」를 통쾌하게 씻어줬다고 말한다. 최근세사에서 아랍인들은 서방측이 무엇을 요구해오건 「에스」라고만 말해야 했고 그만큼 치욕과 증오심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후세인은 아랍인들도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랍인들의 「잠들었던 혼」을 깨워줬다는 것이다.

이번 걸프전쟁에서 美國이 내세운 대의명분은 이라크가 점령한 쿠웨이트를 회복하고 쫓겨난 사바왕가를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밖으로 내놓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뿐 실속은 그렇지 않은 않았다. 美國을 비롯한 서방의 中東정책은 오래전부터 두가지의 기본목표를 추구해왔다. 첫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가 아랍권에서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8년동안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아랍 최강의 지위를 차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채만 잔뜩 짊어지게 된 이라크가 원유가의 상승을 노리면서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러한 서방의 中東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방의 고민은 걸프전쟁을 언제까지 끌어갈 것이냐는 점보다도 中東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후질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점이다.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랍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이 대부분 전근대적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왕권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아랍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反帝·민주화운동의 확산과 함께 서방국가들의 위상도 점차 위협받게 된다.

후세인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점이다. 아랍인들의 反서방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여 전쟁을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간의 대결로 규정지음으로써 쿠웨이트침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아랍진영의 정치적 지도자로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서방은 후세인을 히틀러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후세인 자신은 스스로를 제2의 나세르로 믿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후세인이 없어진다 해도 제2, 제3의 후세인이 등장할 수 있다. 아랍인들 사이에 反서방, 反제국주의적 민족감정이 팽배해 있는한 새로운 후세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아랍에서 후세인은 하나이지만 그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의 「다음 세대 후세인」을 잉태하고 있다.

#### 4. 걸프전쟁의 향후 전망

걸프전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군에 맞서 싸우는 후세인의 전략도 장기전으로 물고거려는 기색이 뚜렷하다.

지난해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때 내세운 명분은 ① 쿠웨이트의 영토침범 ② 쿠웨이트의 석유 증산에 의한 국제유가의 하락 ③ 對이라크전쟁손해등에 대한 쿠웨이트측의 미온적인 태도등을 내세웠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에 대한 美國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美國은 이라크의 침공이 「현대세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거」라고 규탄하고 이라크의 침공을 유엔에 제소하는 한편 이라크의 즉시·무조건·전멸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라크와 대결자세를 굳혔다.

이와 같은 美國의 공세에 대해 후세인은 쿠웨이트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불퇴전의 자세를 보였다. 후세인은 역사적으로 쿠웨이트는 이라크영토의 일부로서 이라크는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점령문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본적 원리와

전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와 같이 후세인은 쿠웨이트침공을 아랍세계의 오랜 현안인 팔레스타인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는 「아랍大義」의 실현자로서 클로즈업되었다. 그의 논리는 아랍세계에서 크게 어필되었다. 그는 격한 아랍민족주의의 이상주의자이면서 또 한편으로 현실주의적 정치가이다. 22년간에 걸친 그의 독재정치가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타협에 의해 유지되어온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사실 美軍의 對이라크 개전 직전 소련의 프리마코프특사는 작년 10월 시점에서 후세인이 「자신은 현실주의자이며, 결국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후세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아랍大義」에서 구하는 가운데 현실정치가로서의 측면을 발휘하지 못한채 대결의 길로 나서고 만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걸프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다음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전에서는 다국적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황이지만 지상전과 실제로 쿠웨이트에 진주하는 시점까지 후세인체제가 확고할 경우 이 전쟁은 장기화되어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둘째는 다국적군의 전력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라크체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후세인이 실각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라크군이 지상전에서 상당히 완강하게 저항하지만 결국 다국적군에 패배하여 후세인체제가 타도되는 경우이다.

이상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여 향후 정세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은 구도를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레바논 內戰型的 정착을 의미한다.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과 美해병대의 레바논 상륙 케이스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정규군 정면으로부터의 지상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에서는 처참한 테러공세로 다국적군측의 사상자수도 날로 늘어나면서 다국적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전쟁의 무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경우는 다국적국, 특히 美國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케이스로 적당한 단계에서 다국적군은 어떤 형태로 타협, 전쟁도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

게 된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철수는 실현되지만 이라크의 사실상의 승리를 의미하며 그후 中東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두번째 및 세번째 시나리오는 후세인체제의 붕괴를 뜻한다. 美國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의 의도가 실현되어 아랍세계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게 된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직후인 지난해 8월 10일에 열린 아랍수뇌 회의에서는 이라크의 침공을 비난, 이라크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랍합동군파견결의안을 12대9로 가결했다.

그 결과 아랍세계는 크게 분열되었는데 이 결의에 찬성한 쿠웨이트와 유사한 왕정체제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등 GCC(걸프협력회의)의 6개 회원국을 제외하면 이라크와 대항관계에 있는 이집트, 시리아, 모로코등이었다. 요르단, 팔레스타인(PLO), 예멘, 튀니지, 알제리, 수단등은 모두 이 결의에 반대했다. 또 아랍인들 사이에는 후세인이 제기한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을 지지하는 세력이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걸프전쟁 발발후 아랍제국의 각지에서 벌어진 후세인 지지시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후세인의 패배는 이들 아랍세계의 민중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나세르 이집대통령이 단 6일만에 이스라엘에게 참담한 패배를 맞은 1967년 6월의 제3차 中東전쟁과 어느 의미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이 경우 아랍세계의 분열은 한층 심화되고 무력감이 팽배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요르단, 알제리, 튀니지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이 고양되고 일부국가는 정치적 위기에 휘말릴 위험성도 있다.

이번 전쟁이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간에 美國이 주장하고 있는, 쿠웨이트를 침공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라크가 추진해온 쿠웨이트의 이라크화 정책으로 쿠웨이트의 정치적 안정은 간단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라크에는 어떤 체제가 생겨날 것인가. 적어도 친미적 정권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라크사회는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보이지 못하고 점차 해체되지만 反美를 기조로 하는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美國과 공동운명체의 노선을 취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앞날도 다난하다. 파드국왕은 이번 걸프분쟁과정에서 여러차례 표명한 기본법(헌법)의 제정과 민의를 묻는 자문회의(의회)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美軍의 장기주둔을 요청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盟主로서의 위치는 크게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의 개관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분명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국적군이 레바논내전형의 전투에 휘말려 사실상 패배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지만 군사적으로 후세인을 궁지에 몰거나 후세인의 제거에 성공한다 해도 그후의 걸프만과 中東정세의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어 美國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손상을 받을 것이다. 후세인이 최후까지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을 절규하며 순교하는 경우에 美國이 안게 되는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 美國이 시나리오대로 후세인을 몰아 붙여 타협을 받아내든가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후세인이 주장해온 하나의 논리, 즉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맺는말

이번 전쟁에서 서방측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아랍국가들 사이에 안정된 세력균형상태가 형성되고 이를 보장하는 국제적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라크를 공격하되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지는 말고 다만 군사대국의 이빨만 뽑아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아랍권 내부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라크가 재기불능이 아닌 도전불능의 상태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직접 무차별 공격해야 하지만 이는 이라크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를 적당히 두들기면 후세인이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美國과 서방이 가능하면 피하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결국 美國과 서방은 이라크를 적당한 수준에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보전시킴으로써 전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초기의 전략을 바꾸어 이라크의 군사적 무력화라는 새로운 선택을 결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군사전략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중의 정치적 문제해결을 유보하고 희생시키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막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사막은 인류 최초의 고등문명(수메르·고대 이집트)을 창출했으며 모든 종교의 천재들을 배출하여 세계문명을 리드했으며 오늘은 르네상스 이래 과학문명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막은 무궁한 에너지와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이다. 인류는 이 사막과 대처하는 슬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의 「지하드」는 결코 강자의 논리만으로는 종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오늘의 걸프 전쟁은 인류에게 다시 가혹한 교훈만을 남길 것이다. 인류의 문제는 결코 전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향락속에 범죄오고  
근면속에 번영온다